2008 오산시의회

유럽연수 보고서

(1. 16 ~ 1. 24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오 산 시 의 회

목 차

■ **2008년 오산시의회 유럽연수 개요** ······························ **3**

■ **유럽선진지 시찰 일정표** ··· **7**

■ **이동경로** ··· **9**

■ **주요시설 방문지** ·· **11**

- 노인복지시설 방문 (이탈리아, 로마) ································ 13
- 교통박물관 견학 (스위스, 루째른) ······························ 23
- 자전거도로 견학 (파 리) ·· 29
- 파리신도시 라데팡스(LA DEFANCE) 견학 ························· 39
- 영국 지방의회 방문(런던,WESTMINSTER) ························ 51

■ **각국 유적지 견학** ·· **61**

- 이탈리아 : 로마 ·· 63
  - 바티칸박물관, 폼페이유적지
- 스위스 : 루째른, 인터라겐 ·· 79
  - 융푸라우호
- 프랑스 : 파 리 ·· 91
  -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 영국 : 런던 ·· 103
  - 대영박물관

■ **유럽문화 체험후기** ·· **113**

2008년 오산시의회 유럽연수 개요

■ 목 적

- 유럽의 지방의회운영, 사회복지, 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의 실태를 비교연수 하기 위한 의원 해외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으로써
- 연수국의 우수·수범사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오산시 의회의 의정발전은 물론 오산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08. 1. 16 (수) ~ 1. 24(목) [7박 9일]

■ 연수대상국 : **유럽 4개국**(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 연수인원 : 10명(의 원 5, 수행공무원 4, 홍보기자 1)

구 분		직 위	성 명	연 수 분 야
의 원	단 장	부 의 장	이 기 홍	지방의회운영분야
	단 원	의 원	김 미 정	사회복지분야
		의 원	윤 한 섭	환경분야
		의 원	김 명 철	문화관광자원활용분야
		의 원	장 복 실	도시, 교통분야
공무원	수행원	의회사무과장	최 승 혁	연수지원총괄
		행정 7급	박 선 미	행정지원
		기능 8급	이 재 선	기타지원
		기능 10급	김 호 연	사진촬영
기 자	홍보기자		한 현 구	의정홍보

■ 주요시설 방문

- 노인복지시설 방문 견학 (이탈리아, 로마)
- 교통박물관 견학 (스위스, 루째른)
- 공용자전거실태 및 자전거도로 견학 (파 리)
- 파리 인근 신도시 (LA DEFANCE) 견학
- 영국 지방의회 방문 (런던, WESTMINSTER)

■ 기대효과

가.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와 배경

유럽의 지방의회운영, 사회복지, 환경, 교통, 문화관광 분야 활용 실태비교를 위한 해외연수

나. 여행 중 수행하는 과제 내용

o 지방의회운영분야 : 이기홍 의원
- 의회운영방법
- 의회운영관련 우수·수범사례 발굴

o 사회복지, 환경 분야 : 김미정, 윤한섭 의원
- 하수처리실태
- 쓰레기수거 및 정수처리 실태
- 양노원 운영 실태
- 우수, 모범사례자료 수집

o 문화관광, 도시· 교통분야 : 김명철, 장복실의원
- 자전거도로 운영 실태
- 문화관광자원 활용 및 운영실태 등
- 우수, 모범사례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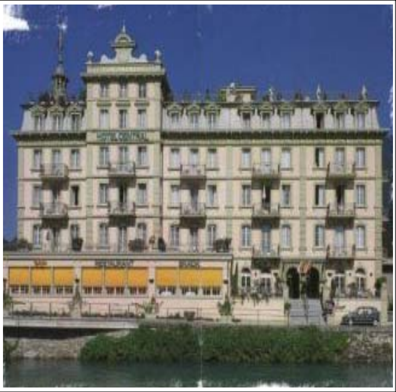
다. 여행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 및 환경, 도시,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과 활용 실태를 직접 보고, 우수· 수범사례를 수집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오산시 의회 발전은 물론 오산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유럽 선진지 시찰 일정】

날짜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1/16 (수)	인 천 로 마	KE 927	11:00 13:00 17:15	인천공항 집결 후 탑승수속 인천공항 출발 로마 도착
1/17 (목)	로 마	전용버스	오 전 15:00 오 후	▶ 바티칸 박물관 견학 ▶ 노인 복지시설 방문 견학 CASA DI RIPOSO ROMA (양로원)
1/18 (금)	로 마 폼 페 이 나 폴 리	전용버스	전 일	▶ 전일 문화 유적 답사 화산폭발 유적지 폼페이 유적 답사 나폴리 항만 견학
1/19 (토)	로 마 쥬 리 히 루 째 른 인터라겐	LX1727 전용버스	09:40 11:25	로마 출발 스위스 쥬리히 도착 후 루째른 이동 ▶ 교통박물관 (Berkehrshaus der schweiz) 견학 인터라겐 이동
1/20 (일)	인터라겐 파 리	T.G.V	오 전 오 후	알프스 영봉인 융프라우호 체험 등반 T.G.V 편으로 프랑스 파리 이동
1/21 (월)	파 리	전용버스	오 전 오 후	▶ 하수처리 시설(쓰레기 수거 및 정수) 견학 LES EGOUTS DE PARIS - 하수도 박물관 - 루브르 박물관 견학 ▶ 파리 공용 자전거 실태 및 자전거 도로 견학 VALIB(Velo + Liberte) PROJECT 시설 견학
1/22 (화)	파 리 런 던	전용버스 유로스타	오 전 오 후	▶ 파리 인근 신도시 LA DEFANCE 견학 파리 출발 런던 도착
1/23 (수)	런 던	전용버스 KE 908	오 전 오 후 20:05	▶ 지방 의회 방문 견학 WESTMINSTER COUNCIL 예정 - 대영박물관 견학 런던 출발
1/24 (목)	인 천		16:00	인천 도착 후 해산

■ 사 용 호 텔 ■

DATE	CITY	HOTEL NAME & ADR. TEL. NO.	PHOTO
16-19JAN	ROME	EURO SUITE HOTEL	
	[6TWN]	TEL: 39- 06- 5051 4028 FAX: 39- 06 -5000 523	
	* 92R. 4STAR. EUR에 위치. 명소 중심지까지 15KM. DIRECT DIAL TELEPHONE, SATELLITE TV, HAIR DRYER, HEATING, MINI-BAR AIR CONDITIONING,		
19-20JAN	INTERLAKEN	CENTRAL CONTINENTAL HOTEL	
	[6TWN]	TEL: 41- 33- 823 10 33 FAX: 41- 33- 823 10 03	
	*4STAR. 최근에 RENOVATION, 강가에 위치. SHOWER BATH, WC, TV AND A TELEPHONE WITH DIRECT OUTSIDE ACCESS.		
20-22JAN	PARIS	MERCURE NOISY LE GRAND HOTEL	
	[6TWN]	TEL: 33- 1- 45 92 47 47 FAX: 33- 1- 45 92 47 10	
	호텔 앞 분수대광장 앞에 지하철역있음 (RER A :NOISY-MONT D'EST) SWIMMING POOL, BUSINESS CENTER, RESTAURANT, FITNESS CENTER, GYM, SAUNA 장애인 ACCESS, SAT-TV, MINI BAR DIRECT PHONE, HAIR DRYER		
22-23JAN	LONDON	HOLIDAY INN M4 HOTEL	
	[6TWN]	TEL: 44- 208- 201 8686 FAX: 44- 208- 455 4660	
	* 608R. 11F. 히드로 공항 쪽에 위치 AIR CONDITIONING, REFRIGERATOR, TELEPHONE, NON-SMOKING, COFFEE MAKER, MIN-BAR FITNESS , GOLF, TENNIS COURT, BUSINESS CENTER, FREE HIGH SPEED INTERNET		

■ 이 동 경 로 ■

1월 16일 ~ 1월 19일	한국(인천) → 이탈리아(로마) 항공 이동
	EURO SUITE HOTEL 39-06-5051-4028
1월 19일 ~ 1월 20일	이탈리아(로마) → 스위스(쥬리히) 항공 이동
	CENTRAL CONTINENTAL HOTEL 41-33-823-1033
1월 20일 ~ 1월 22일	스위스(쥬리히) → 프랑스(파리) **TGV** 열차 이동
	MERCURE NOISY LE GRAND HOTEL 33- 1- 45 92 47 47
1월 22일 ~ 1월 23일	프랑스(파리) → 영국(런던) 유로스타 이동
	HOLIDAY INN M4 HOTEL 44- 208- 201 8686
1월 23일 ~ 1월 24일	영국(런던) → 한국(인천) 항공 이동 (기내 **1**박)
	기내 **1**박

주요시설 방문지

- 노인복지시설 방문 (이탈리아, 로마)
- 교통박물관 견학 (스위스, 루째른)
- 자전거도로 견학 (파 리)
- 파리신도시 라데팡스(LA DEFANCE) 견학
- 영국 지방의회 방문(런던,WESTMINSTER)

로마 시립 노인복지시설

Casa Di Riposo RM3

(2008. 1. 17(목) 15:00)

1. 시설 개요

☐ 설립년도 : 1962년

※ 로마시에서 임대하여 사용

☐ 총객실수 : 160호(160명) - 1인 1실

☐ 수용객실 : 58호(58명)

☐ 이용자격 : 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만 가능

☐ 총종사자 : 87명(시청 공무원 7명+외주회사 직원80명)

☐ 이용요금 : 마지막 10년간 연금평균의 70%(한화로 23만원 정도)

☐ 부대시설 : 식당, 대회의실, 헬스장, 미용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

Casa Di Riposo RM3 (Institute of Gerontology)는 로마시에서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로마시는 로마1, 로마2, 로마3 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시설을 각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로마1 및 로마2 지역의 노인시설은 18-20명의 소규모 수용인원을 지니나 로마3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Casa Di Riposo 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이 1백60명으로 대규모이다.

이 곳의 특이한 점은 시설의 총책임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시설주요 당자들이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보인 연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립양로원에 비해 이 시설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시에서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시설의 장점은 건강한 노인들이 가족의 도움 없이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비슷한 형편의 노인들이 모여 생활함으로써 부대시설 이용과 써클활동 및 취미활동으로 보다 여유롭고 외롭지 않은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때문에 이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인원이 매우 많다고 한다.

2. 노인복지시설 전경 및 부대시설

□ 시설전경

□ 노인복지시설장 제루까 박사와의 인터뷰

□ 시설안내 모습

□ 객실

□ 체육시설

□ 기타 시설

□ 선물 증정

□ 방문기념 사진촬영

3. 우리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경로당 지원 : 76개소 167백만원(시설당 년 1,860천원)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 76개소 76백만원

○ 경로당 신축 : 2개소 880백만원

○ 경로당 보수 및 수선 : 60백만원

○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운영 : 1명 21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 10개소 60백만원

- 건강기체조, 민요교실, 노래교실, 점토공예, 생신잔치 등

○ 경로당 노래방기기 보급 : 4개소 6백만원

□ 요보호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 승우노인무료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 : 1개소 788백만원

시설의 종류	소재지	건축연면적	입소현황		입소비용(실비)		개소일
			정 원	현 원	월수납액	보증금	
의료복지 시설	가장동6-1	1,522.2㎡ (460평,3층)	50명	47명 (무료32,실비15)	706천원	8,000천원	06.1.18

○ 노틀담사랑터 노인실비요양원 운영비 지원 : 1개소 281백만원

○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승우,노틀담사랑터) : 2개소 2백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5개소 637백만원

【주간보호센터】

시설명	위 치	건 축 연면적 (㎡)	입소현황		입소비용(실비)	설치일
			정원	현원		
오산주간보호 센터	오산동 853-32	316	10	10	월13만원	01.02.23
오산은빛사랑채	오산동 6-10	177	15	0	월18만원	06.12.13
오산남부은빛사랑채	원동 404-10	211	20	5	월18만원	07.08.27

· **이용대상** :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자

※ 이용 우선순위 : 보호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자

· **주요서비스 내용**: 낮 동안 생활지도, 급식, 목욕, 운동 및 상담 등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설명	위 치	건 축 연면적 (㎡)	수 혜 자		종사자	가정봉사원		비고
			정원	현원		유급	무급	
오산가정봉사 파견센터	오산동 853-32	316	80	112	4	7	6	
감돌가정봉사 파견센터	오산동 844-7	49.5	80	95	4	6	4	

- **유급봉사원 운영** : 유급봉사원 1인당 치매 또는 중풍노인을 8명씩 간병 보호

4. 개선사항

우리시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경로당 외에는 없다.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 경로당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비사교적이거나 소극적인 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우리시에서도 로마의 Casa Di Riposo와 같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저렴한 돈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숙식 해결과 건강상태 체크, 여가활동 등을 책임지는 시설이 필요하며, 기존 경로당의 추가적인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유럽 최대의

교 통 박 물 관

- Verkehrshaus der schweiz -

(스위스 2008. 1. 19(토) 13:00)

교통박물관(Verkehrshausder Schweiz)

스위스 루째른에 있는 유럽 최대의 교통 박물관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피어발트슈테터의 호수에 위치한 이곳은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공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경관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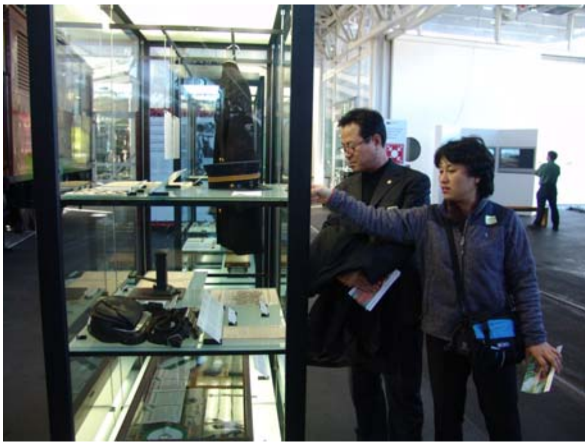
SL 등 차량 60량, 클래식 카 40대, 35기의 비행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발명자 아프트 apt의 이름을 붙인 아프트식 기관차도 있다. 아프트식 기관차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873년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지금도 등산전차로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40여 대의 구식 자동차, 35대의 항공기가 있으며 우주 캡슐과 월장석, 증기식 필라투스 기차, 세계에서 가장 큰 고트하르트 철도의 모델 등을 볼 수 있다.

교통 박물관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종석에 앉아 볼 수도 있으며 기관실에 들어가서 기계의 움직임을 볼 수 도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박물관이다.

그밖에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360도 대파노라마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이소라마’ 코너가 있고 천체 견학실도 있다.

□ 교통박물관 전경

□ 교통박물관 이모저모



□ 교통박물관 앞 피어발트슈테터의 호수

서유럽의

자 전 거 도 로

1. 유럽의 자전거 정책

□ 자동차 억제정책

유럽의 자전거 친화도시들 공통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법률상으로도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우선이다. 자전거 도로상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일조차 상식 밖에 일이다.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자동차 이용자에 불이익을 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는 **'자동차 길들이기(Car Taming)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시내의 자동차 주차료가 시간당 3유로 40센트(한화 약 5천원)에 달하는가 하면 불법 주차 시 5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도심가 주변의 주차시간을 30분으로 한정하는 것, 도심가에 자동차 진입을 금지하는 볼라드(bollard: 기둥) 설치 등이 좋은 사례이다.

□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

유럽의 자전거 친화도시들은 처음에는 도심 교통난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자전거에 접근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이제 자전거를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매개체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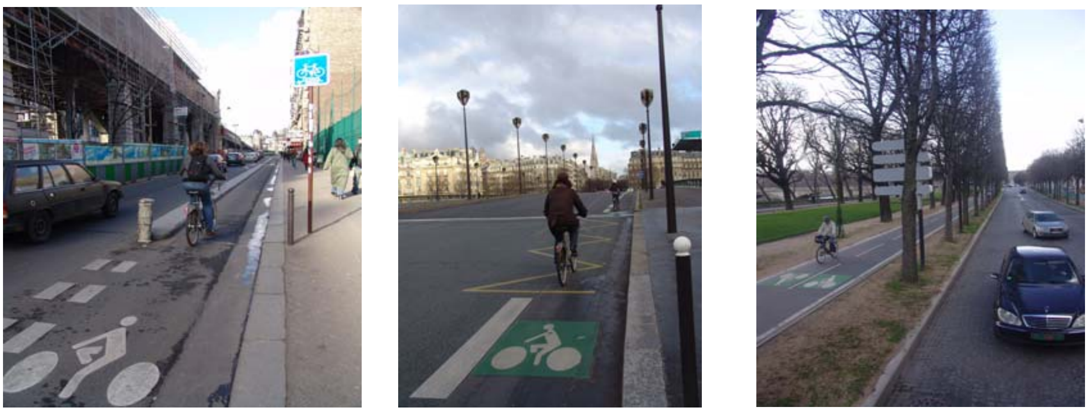
유럽 자전거 도시들은 자전거가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자전거가 여가나 운동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전거를 위한 독립적인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전거 인프라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 자전거 도로 형태

○ 자전거 이면도로

기존 자동차 도로의 한 쪽 차선을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는 형태이다. 자전거 도로 바닥에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흰색의 자전거 표지가 곳곳에 되어 있다. 도로 폭은 자동차가 문을 갑자기 열었을 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넓다.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도로

스위스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로 대개는 보행자들도 통행이 금지된다. 보행자 길과 구분되지만 보통은 보행자 길과 나란히 인접하여 있는데 자동차 도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이에 가로수 길이 있거나 진입 방지 턱이 설치되기도 한다.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신호등

자동차와 자전거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자전거 신호등이 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는 수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

○ **자전거 표지판**

도심에서는 자동차 진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적지 않다. 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 자전거 관련 표지판이 적재적소에 있다. 또한 방향이나 목적지 등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 어떤 곳에서는 자전거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이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더 손쉬운 곳도 있다.

스위스 표지판

프랑스 표지판

○ **자전거 보관시설**

대형 건물이나 중앙역, 버스 승차대에는 자전거를 묶어두는 거치대나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수 천대 규모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곳곳에서 건설 중에 있다.

스위스의 자전거 보관시설

파리의 자전거 보관시설

2. 파리의 자전거도로정책 【벨리브 프로젝트】

문화예술의 도시인 파리가 자전거를 통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파리 전역에서 무인 자전거 서비스인 “벨리브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각 계층에선 “자전거 르네상스”, “자전거 혁명”이라고 한다고 한다. velib는 자전거 veio와 자유라는 뜻의 liberte가 합성된 단어다. 즉 자유롭게 파리를 달리는 자전거......

현재, 750여 곳의 대여소와 자전거 1만 600여대가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 파리시는 2007년 말까지 대여소 1451 곳에 총2만 600대의 자전거를 확충할 계획, 라피거리 약 300m마다 자전거 대여소가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정류장마다 시내지도와 사용 매뉴얼이 여러 언어로 잘 설명되어 있다.

벨리브는 이 무인시스템으로 랜트 가능, 벨리브 1년 정기 이용권은 29유로(한화 약 3만 육천원)로 매우 저렴하다. 1주일 대여료는 5유로, 처음 30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 매30분마다 1유로씩 요금이 부과되는데 선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지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벨리브 카드신청서는 파리의 300개 지하철역이나 구청 등에서 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하철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카드에 벨리브 서비스가 추가, 벨리브의 무게는 약 22kg 정도, 3단 기어에 바구니까지 정착되어 있다. 또한 부품은 다른 부품과 호환이 되지 않고 인공위성으로 위치추적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루 이상을 사용하거니 약속 기간 내 반납이 안되면 장치된 경보장치가 울려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파리 시민들이 밸리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빌린 곳에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납은 도착지점에서 가까운 정류장에만 하면 되는 것, 정류장도 나름 많으니 자전거를 세우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자전거 설치와 운용비용을 담당하는 JC드코는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파리시로부터 광고판 1600여개 사용권을 받았다.

처음 한달간 벨리브 이용자수는 무려 150만명, 실제로 벨리브 프로젝트 이후 자전거 이용자수가 늘었고 벨리브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차를 예전보다 덜 이용한다고 한다. 파리는 371km애 이르는 자전거 도로까지 확보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나름 편하다고 한다.

이런 파리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자전거 투어’다. 1인당 34유로만 내면 유명 관광지 가이드는 물론이고 자전거 랜트비용, 보험, 그리고 안전요원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파리시는 2020년까지 자동차 통행량을 40%로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그 계획에서 자전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리시는 자전거 통행허용 도로도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3. 우리시의 자전거정책 방향

21세기에 들어서서, 20세기 산업화의 부산물인 교통·환경·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십 년간 교통 정책을 이끌어 온 자동차 산업은 환경,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난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더욱이 웰빙(Welling-being) 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과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21세기 녹색교통의 축을 이루는 자전거를 통해 교통·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의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도시, 선진화된 정책을 우리시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신도시나 새롭게 건설되는 도로의 경우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행자나 자전거 등 교통약자들과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편안하고 유익하다 생각하도록 하는 행정 계도가 필요하다.

파리 신도시

라 데 팡 스

-La Defense-

(2008. 1. 22(화) 13:00)

1. 도시개요

□ 위치 : 프랑스 파리 북서쪽 6㎞ 지점

□ 면적 : 744ha(A지구 : 154ha, B지구 : 590ha)

□ 인구 : 11만5천명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는 파리 도심에서 서쪽으로 8㎞ 지점 세느 강변에 조성된 파리의 부도심이다. 파리의 중심지역에 있는 튈르리 공원, 콩코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등은 라데팡스 지구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도시를 관통하는 축을 형성한다.

프랑스 미테랑 정부와 파리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위원회가 1958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 개발구상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라데팡스는 46만평의 땅위에 첨단 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 등의 우수한 현대 건축물들이 고층·고밀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어서 있다. 시내 중심에는 건축물 보호에 따라 대규모의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지가 몰려있는 파리 시내를 구시가지라 한다면 이곳을 신시가지라 할 수 있는데, 라데팡스 지구를 조성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도로 등은 지하로 배치해 자동차 소음도 들리지 않고 차가 보이지 않아 도심의 혼잡이 거의 없다.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맞이하여 미테랑 전대통령이 열렬히 지지했던 그랑다르슈(프랑스어: Grand Arche)라 불리는 라데팡스의 신개선문인 초현대식 건물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랑다르슈는 하이테크 건축 기법을 사용, 천정을 구름모양의 텐트로 덮은 구조물이다. 앞의 넓은 광장은 파리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서 여름이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많은 행사가 열린다. 신개선문이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상으로 샹제리제 거리의 구개선문이 보인다.

2. 도시의 구분

이 지역은 크게 상업지구와 주택지구, 공원지구로 나뉜다.

1) A지역 : 상업지구

퓨또와 쿠브브와를 거쳐 CNIT(Centre National des Industries Techniques)

까지 이르는 160ha에 이르는 지역으로, 미개발지역이어서 건물을 짓기에 편리했고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한 마찰도 거의 없었으며 거대한 지하부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파리에서 위치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적인 축을 잇는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북서쪽 주거지역에서 쉽게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0년 라데팡스 지구(Quartier de la Defense)라고 명명하였으며 파리지역 인구이동과의 연관성 증가, 늘어나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인위적인 축을 형성하고 보행자를 위해 거대한 슬래브(slab)를 이용한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다.

2) B지역 : 주택, 공원지구

이 지역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던 슬럼지구였으나 룩셈부르크(Luxembourg)와 비슷한 크기의 공원이 1978년 완공됨으로써 공원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공원의 남쪽으로는 15ha 크기의 약 3,000개의 주거군이 밀집하여 있으며 피카소 에비뉴(avenue Picasso)와 퐁트넬 지구(le quartier des Fontenelles)에는 6,000개의 주거지역이 밀집하여 있고 22,000명의 주민, 그리고 이를 위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가 입지해 있다.

다양한 아틀리에(atelier)가 입지하여 예술가들의 활동공간과 주거공간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지방의 작은 마을의 모습을 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그 안에 대학교, 건축학교, 예술학교, 음악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보유해 보다 가족적인 공간으로써의 주변 환경 및 녹지 조성에 주력했다.

3. 도시이미지

○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구조를 지향한 중심축이 살아있는 조형도시

○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보행자 지상주의 도시

4. 혁신사례

1) 탄력적인 건축규제 방안마련

○ 1964년에 발표된 당초의 마스터플랜은 동일 현상의 30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인 인공도시로 계획 되었다.

○ 주택은 중층의 8층 건물로서 4각형, 상업용은 저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또한 각 건물의 평면은 가로 42m, 세로 24m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성이 없는 획일적인 경관과 수용에의 부적응이 문제 되었다.

○ 1970년 마스터플랜의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규제에 탄력성 있게 적용되었다.

○ 건축형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높이 제한은 180m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환영을 받았다.

〈라데방스의 건축물〉

2) 도로체계

□ 입체교통시스템(인공지반 도입과 다층구조 교통여건)

○ 비즈니스 지역(48만평)에 거대한 복층도시구조를 설치하고, 도로·지하철·철도·주차장 등 모든 교통관련시설은 아래층 지하에 설치되고 그 위에 건축물 및 각종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 복층구조를 통해 교통효율의 극대화, 파리의 전통인 역사성과 예술성의 강조, 공간 활용도 제고, 개발비용을 절감하였다.

○ 지상에서의 도로 확장, 신규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비 부담과 공기 장기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간 이용도를 극대화하였다.

○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지상공간은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 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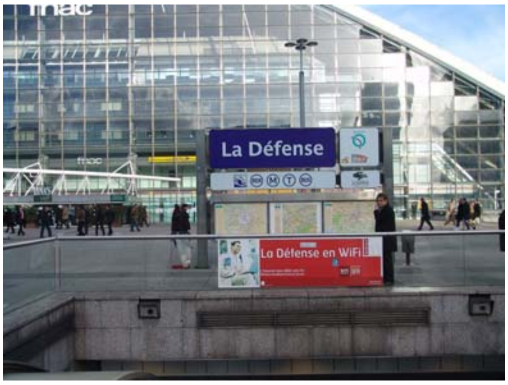
○ 지하교통망을 통해 하루 15만여 명을 수송하며 외부유입 승객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 파리 주변 모든 신도시에서 1시간, 대부분의 공항에서 45분, 모든 파리기차역에서 35분, 파리의 중심업무지구에서 15분에 동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다.

○ 14번 고속도로(A14), 지하철 메트로 1번선, RER(고속철도) A선, SNCF(국철), 버스 18개 노선 등이 모두 복층도시의 지하에 위치해 있다.

○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위주의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

○ 라데팡스는 많은 버스들의 종점으로 버스를 통해 파리시내 주변지역과 연결되고 있다.



□ **교통망 계획의 3가지 원칙**

○ 남북으로 터널을 뚫어서 한쪽으로는 A14번 도로, 나머지는 RN13번 도로를 통과시키고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 설치, 그 위로는 정원과 상업 시설군을 배치하였다.

○ 한 개의 튜브를 이용해서 두개의 터널을 연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3개나 4개의 작은 길들을 A14 도로와 통하게 연결했다.

○ 지하부분에 치중한 계획으로 각각 3차선 크기의 일방 도로를 배치, 메트로(metro)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일관된 도시설계 작업

□ **역사적 중심축(Great Axis)**

○ 지난 40여 년간의 개발기간동안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역사적 중심축 연결'이라는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설계구조를 유지하였다.

○ 라데팡스는 루브르박물관-콩코드광장-상제리제거리-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 선상에 놓여 있다.

○ 루브르박물관-개선문-라데팡스로 이어지는 8㎞의 일직선 길을 일컫는 "역사적 중심축"을 살린 도시설계를 하였다.

○ 라데팡스 신도시는 낭테르 쿠르브부와 퓌토 등 3개시에서 일부 지역을 흡수, 중심축 좌우가 대칭이 이루어지게 구획했다.

○ 별개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 대도시인 파리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파리에서 라데팡스를 거쳐 북서쪽 25㎞에 위치한 세르지퐁트와즈 신도시 전망대까지 축이 연장되게 하였다.

<강렬한 직선축>

<라데팡스 스카이라인>

<그랑아쉬, 신개선문>

□ 관광 신도시

○ 유럽최대의 업무단지인 동시에 관광적 요소가 극대화된 신도시이다.

○ 최고의 비즈니스단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도시설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예술적 감각을 가미하는 한편 트인 공간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였다.

○ 그랜드아치(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작)등 대형 건축물과 전망대를 설치했다.

○ 미학과 기능이 조화된 도시라는 평가와 더불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 복층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보행자 전용으로 함과 동시에 소형 관광버스만은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 엄 지 손 가 락 - 세 자 르 >

5. 성공요인

□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과 편리한 인프라구성에 의한 기업의 유치

1970년대 이후 프랑스 국내외 기업들의 진출이 줄을 이었고 비즈니스 지역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기업이 이곳에 본사나 지사를 설치했으며 엘프아퀴타인사, EDF 토털사, 프랑스텔레콤 등 프랑스 상위 20개사 중 14개사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엑손, IBM, 모빌 등 세계적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 완벽한 교통망 구축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신도시 주거기능 활성화를 위해 개발초기부터 정부보조 및 건축권 판매로 조성된 자금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집중 투입되었다.

6. 시사점

□ 도시내 건물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파리 중심부의 역사적 보전 건물과 대비하여 신도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었다.

□ 신도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지하철, 철도, 버스, 주차장 등)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 파리주민의 인구분산 효과를 얻기보다는 파리 구도심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지구 건설하였다.

7. 검토사항

□ 성냥갑 모양의 일관된 건축을 지양하고 다양한 예술적인 모양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검토 필요.

□ 신도시 계획 시, 단기적인 계획인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자원으로의 발전 및 도시 효율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 필요.

영국 지방의회

웨스트민스터시 방문

- City of Westminster -

(2008. 1. 23(수) 15:00)

영국의 지방정부

1. 개요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과 집행이 통합된 기관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장직을 겸직하는 시장은 시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수반으로서의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모든 권한이 지방의회에 속하며, 지방의회의 각 위원회가 의회의 예비심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전달된 사항의 집행도 담당한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각 국장은 각 소관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집행하며 책임도 소관위원회에 대해서 진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권화의 경향과는 달리 중앙집권화의 추세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간여의 정도와 갈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다른 유럽국가의 지방자치체제와 비교

○ 일반적인 자치권의 행사에 있어 영국의 자치단체는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주민을 대신해서 자치단체가 권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 리더십 발휘에 있어 영국의 자치단체장은 프랑스의 시장이 누리는 명성과 인지도에 비교하여 크게 미치지 못한다.

○ 주민과 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인정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큰 규모로 인하여 주민이 일체감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영국 지방정부의 특징과 기능

□ 지방정부의 특징

○ 지방정부의 존재와 권한이 국회에 의해서 주어지고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국회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면서 동시에 집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서 집행관보다 우위에서는 특징을 갖는다.

○ 최근 영국의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이어서 종전의 자급자족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소위 『능력있는 정부』로 변모하고 있다.

○ 1990년을 전후로 한 지방세제 및 제정제도의 개편 결과, 최근에는 지방재정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각지방정부의 행정수요와 경제력에 따라서 지방세 세율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 영국은 단일국가이면서 지역별로 통치형태와 행정조직이 상이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통상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유사한 반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들과 다른 통치형태와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 지방정부의 기능

전통적으로 영국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구조 및 기능 그리고 지방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각종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영국의 지방정부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법률로는 지방 정부법을 들 수 있다. 영국 지방정부의 전통적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을 비롯하여, 주택, 지방 환경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사회복지, 주민건강), 도서관, 박물관, 예술, 경찰, 소방, 도로, 수송, 계획, 일부 경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교육, 주택, 환경 세 부분이며 이들이 전체 지방재정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4. 영국지방정부의 최근의 동향

○ 교육주택기능의 권한축소

○ 기술서비스(쓰레기 수거, 청소, 음식공급, 수선, 관리)와 전문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세

○ 직접서비스와 무관한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의 증가경향(신도시 개발 등)

○ 단일 목적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 증가

○ 준정부기관의 서비스공급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연금은 중앙정부가, 대인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 및 재원배분도 잘 되어 있어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해외원조, 통화관리 등 국가차원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주민의 편익 및 일상생활과 연계된 교육, 주택, 사회서비스, 환경, 경찰 및 소방 등을 제공하는데 치충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변화는 주로 주민수요, 경제원리,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분석된다.

웨스트민스터시(City of Westminster)

1. 시　황

☐ 면　　적 : 22㎢,

☐ 인　　구 : 200,000명

☐ 주요사업체 수 : 44,700개(호텔415개, 관공서, 카페, 빠 등)

☐ 지리적 위치

템스 강의 북쪽 제방을 끼고 있으며, 런던의 웨스트엔드 중심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칙허자치시인 켄징턴첼시에, 동쪽으로는 런던 시에 접해 있다.

☐ 주요명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1895~1903), 버킹엄 궁전, 트라팔가 광장, 세인트 존 파크, 영국의 청와대 소재(총리 거주지 다우닝가 10번지)

2. 방문개요

2008. 1. 23(수) 15시 영국 웨스트민스터시 의회를 방문하였다.

당초 웨스트민스터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의회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눌 계획이었으나, 의사전달상의 착오로 웨스트민스터시의 환경파트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 대한 파워포인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배석한 웨스트민스터시 관계 공무원은 진행 착오에 대해 사과하며, 다음 방문에는 시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웨스트민스터 의회 방문

□ 웨스트민스터시의 쓰레기 처리 분야 브리핑

□ 기념촬영 및 선물증정

3. 웨스트민스터시의 쓰레기 청소 및 재활용 방법

□ 웨스트민스터시의 환경분야 현황

○ 상업용 쓰레기 : 120,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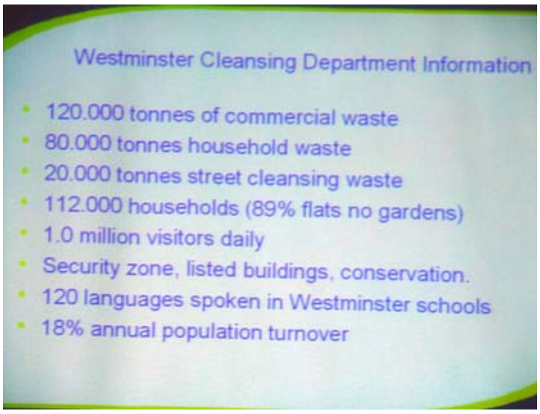
○ 가정용 쓰레기 : 80,000톤

○ 거리 쓰레기 : 20,000톤

○ 가구수 : 112,000가구(89%가 연립주택)

○ 일일방문객 : 100만명

○ 사용언어 : 120개 언어



□ 소요예산(시 예산의 18%)

○ 세 입

쓰레기 수거비 11,000,000파운드(한화 220억원)와 나머지는 국비보조, 주민세로 충당

○ 지 출

- 수거비용 : 35,000,000파운드(한화 700억원)
- 처리비용 : 9,000,000파운드(한화 18억원)

□ 쓰레기 처리 방법

○ 24시간, 연중무휴 처리

○ 쓰리기 수거 : 민간위탁

○ 상업용 쓰레기, 가정용 쓰레기, 거리 쓰레기를 각각 분리수거

○ 분리 수거된 쓰레기는 소각용 쓰레기와 매립용 쓰레기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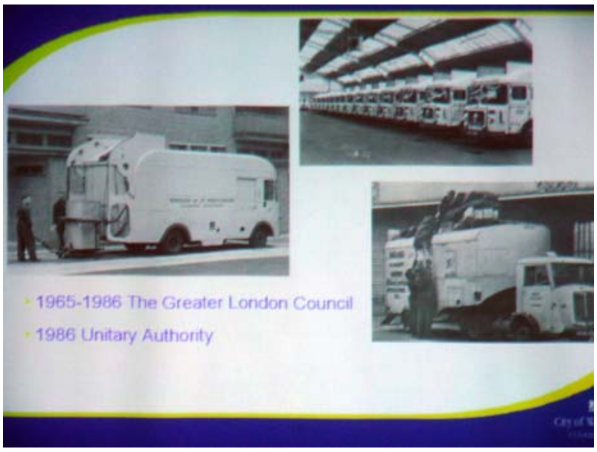
○ 소각용 쓰레기는 화력발전소에서 소각되어 전력을 생산, 4만8천 가구에 전력 공급하고 있다. 매립보다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화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 중에 있다.

○ 대부분의 소각용 쓰레기는 화력발전소 내에서 기계로 분리작업이 되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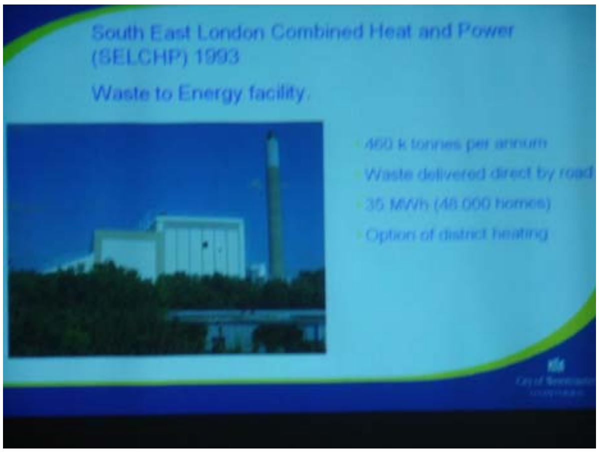
○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의 국물 음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시 환경마크

쓰레기수거 모습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화력발전소

각국 유적지 견학

이탈리아 : 로마

- 바티칸박물관, 폼페이유적지

스위스 : 루째른, 인터라겐

- 융프라우

프랑스 : 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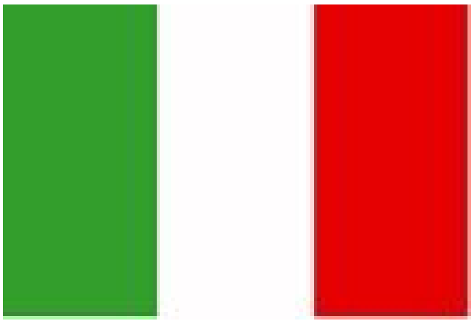
- 루브르박물관, 개선문

영국 : 런던

- 대영박물관

이 탈 리 아　로 마

(2008. 1. 16 ~ 1.19)



□ 바티칸시국, 성베드로성당 견학

□ 로마 시립 양로원 방문

□ 로마 시내 투어

- 트레비분수, 베네치아광장, 포로로마노, 콜로세움 등

□ 폼페이 화산 유적지 견학

□ 쏘렌토, 나폴리항 관광

1. 이탈리아 국가개요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이탈리아는 유럽 대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장화처럼
뻗어 나와 있다.

◈수도 : 로마(Rome, 280만명)

◈인구 : 약 5,875만명(2006년 추정치)

◈기후: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면적 : 301,230km2(한반도의 1.5배)

◈주요도시: 로마, 밀라노, 나폴리

◈언어 : 이탈리아어 ◈종교 : 카톨릭(98%)

2. 로　　마

▶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인 도시 로마(ROME)

ROMA 를 거꾸로 하면 AMOR!! 사랑의 도시 '로마'는 한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든 독특한 매력을 소유한 도시이다.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전한 채 현대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좀도둑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는 테베레 강의 하류에 위치하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영원한 도시라고 불리우며 로마시대에는 일찍이 고대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여러 왕국과 공화국의 수도였으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고대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이다.

로마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전설이 있다. 이것은 BC 753년 로마의 건설자 로물루스와 쌍둥이 형제 레무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레아 실비아와 전쟁신 마르스 사이에서 태어나 티베르강에 버려졌는데 이들을 늑대가 데려다 길렀다고 한다. 이들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났으며 그 후에 누가 이 도시를 통치할지를 두고 싸우다가 팔라티노 언덕에서 로물르스가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의 왕이 되었다는 신화가 있다. 그 후 역사 속에서 로마인은 궁지에 몰리면 야수처럼 저항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암늑대의 이야기는 참으로 상징적이다.

그 후 BC 6세기 말 에트루리아계 왕을 추방하고 귀족에 의한 공화제를 실시함으로써 로마는 여러 라틴 도시의 맹주가 되어 고대 로마 국가의 중심이 될 기초를 닦았다. 또한 이 곳은 카미돌리오 언덕, 첼리오 언덕, 아벤티노 언덕, 에스퀼리노 언덕, 퀴리날레 언덕, 비미나레 언덕으로 처음 집단이 이주하게 되면서 테베레강의 왼쪽에 있는 일곱 언덕이 로마의 중심 거주지가 되었다. 로마인의 도시건설은 우선 공공 광장을 만들고, 그 주위를 벽돌로 벽을 쌓고 교회당과 대하수도를 둘러싼다. 또한 로마 유적의 특징은

완벽한 복원이라든가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름과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는 가톨릭 교회의 정신적, 물질적 중심지로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를 남겼으며, 인류의 예술 및 지성사에 커다란 금자탑을 쌓아올린 도시이다. 현재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인 로마는 1,000년 이상 유럽의 모든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제국의 영토 축소, 경제의 마비, 정치적, 군사적 무력 등으로 인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 세력으로서의 을 잃었지만 입법, 교육, 건축 도시로서 전 유럽에 계속 빛을 발했다. 6-15세기에 교황들의 입지는 때로 위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교를 확산시킨 도시로서 영광을 누렸고, 궁극적으로는 부와 을 되찾았으며 또 다시 미, 지혜, 예술의 도시가 되었다.

영원의 도시, 로마신화 속의 신들을 보낸 다음 유일신의 대리인이 살던 도시, 또한 그 신과 대립했던 르네상스의 도시, 로마는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하나의 낱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얼굴이 교차하는 로마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도시이다.

3. 로마 유적지

□ 바티칸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서 몇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이루어져 1,400여개의 방들이 있으며 역대 교황들이 모은 수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바티칸 박물관의 수집품들은 고대 시리아(Syrian), 그리스(Greek), 로마(Roman), 이집트(Egyptian)와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의 역사적인 유물과 조각, 그림, 태피스트리, 지도 등으로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서도 세계최대라 할 수 있는 성당으로 유럽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다. 거대한 반구형 돔이 인상적인 성 베드로성당은 로마 르네상스 건축의 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15세기에 교황 니콜라우스 5세가 카톨릭 총 본산으로 대변할 만한 성당을 재 건립할 계획을 세운 후 대대로 교황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총력을 기울여 건립한 르네상스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거대한 반구형 돔이 인상적인 건물로서 미켈란젤로의 설계와 구상부터 시작, 총 120년간 공사를 하여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완성되었다.

성당 내부는 거대한 공간과 화려한 예술 작품들의 조화가 주는 웅장함이 사람들을 압도한다. 현관을 포함하면 길이가 211.5m, 천장의 높이 45.44m에 이르는 장대한 성당의 크기는 실제 크기에 비해서는 독특한 설계와 화려한 장식으로 인해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거대한 성당은 6만 명이 동시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진다.

성당 내부 오른편에는 미켈란젤로의 삐에타(Pieta)가 유리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삐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만든 작품으로 그의 작품 중 유일하게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

베드로 성당 내부에서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곳이 바로 성당 중앙의 쿠폴라 (Coupola). 쿠폴라는 원형의 돔을 말하는 것으로 미켈란젤로에 의해 설계되고 델라 포르타에 의해 완공된 이 베드로 성당의 쿠폴라는 높이가 136m, 직경이 42m에 이른다. 이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330 개의 계단을 걸어야 한다. 쿠폴라 아래 재단에는 베르니니에 의해 만들어진 29m의 높이의 청동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제단은 교황만이 오를 수 있어 교황의 제단이라고도 불린다.

성 베드성당 앞에서

베드로성당 내부

예 배 중

마리아와 예수님상 앞

□ 대형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Colosseum)

로마의 상징적인 명소인 콜로세움은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포리 임페리알리 거리에서 1Km정도 거리가 다하는 곳에 있다. 이것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72년에 시작해 80년에 완성된 원형 경기장이다.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며 이 곳의 명칭은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근처에 네로 황제가 세운 높이 30m의 거대한 금도금 상인 클로소(Colossus)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다른 하나는 거대한 건물(콜로사레)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고대 로마시대 유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로마를 상징하는 원형극장으로 5~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단식 관람석이 방사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콜로세오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중세에는 교회나 큰 건물을 짓기 위한 채석장으로 변해 외벽의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등 몹시 훼손되었는데 18세기에 교황의 명으로 그리스도 교도의 수난의 현장으로 수복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

이 경기장은 로마시대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사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곳으로 검투사들의 격투시험장으로 또한 맹수들의 사냥 시합장으로 사용되었다. 로마 제정기 때에는 로마 시민의 오락시설로써, 장내에 물을 채워 넣고 전투를 하는 모의 해전, 생명을 내건 검투사들의 싸움인 검투사의 격투, 맹수와 인간과의 사투와 맹수들끼리의 싸움 등이 시행되어지는 처참하고 잔혹한 게임이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그 후 300년 이상이나 처참한 사투가 되풀이 되다가 405년 오노리우스 황제가 격투기를 폐지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막을 내렸다. 현재는 통로와 방의 칸막이가 노출되어 있다.

□ 트레비 분수(Fontana di Trevi)

로마의 수많은 분수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분수로 '트레비'란 삼거리란 뜻으로 바로 앞에 3개의 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트레비 분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것은 교황 클레멘스 12세의 명에 의하여 니콜라 살비가 디자인하여 30년만인 1762년 교황 클레멘스 13세가 완성하였다. 이 분수는 100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1485년 교황 니콜라우스 5세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17세기에 재건되어 로마의 명물이 되었다. 이 분수의 거대한 물줄기는 조그만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바로 앞에 붙은 궁전의 한쪽 끝을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조각으로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다.

트레비 분수의 물은 처녀의 샘이라고 한다. 전쟁에서 돌아온 지친 병사에게 물이 있는 샘물을 한 처녀가 알려 주었는데, 이 트레비 분수의 샘이 그 곳에서 끌어왔다고 하여 전해진 말이라고 한다. 이 분수에서 등을 돌리고 동전을 던져 넣으면 다시 로마에 올 수 있다는 전설로 유명하다.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방법은 동전을 오른손에 잡고 트레비 분수를 뒤로 하여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한 개의 동전을 넣으면 로마에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두 개를 넣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 개를 넣으면 이혼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분수 바닥은 세계 각국의 동전으로 가득 차 있다.

□ 베네치아 광장

로마에서 가장 복잡한 곳으로 교통의 요지이다. 광장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일명 '비토리아노'로 불리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통일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다. 기념관의 중앙부 계단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고 그 앞의 꺼지지 않는 불을 항상 두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다. 광장의 왼쪽에 있는 베네치아 궁전의 2층 테라스는 무솔리니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즘을 주창하며 군중들을 선동하던 장소이다.

□ 로마시청

□ 화산폭발 유적지 폼페이(Pompeii)

서기 79년 8월 번영하던 로마제국의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전체와 2,000여명의 주민이 함께 화산재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비운의 도시이다.

베수비오는 26일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 속에 덮여버리는 폭발 이전에 몇 차례 경고를 했지만 폼페이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한순간에 손써볼 겨를도 없이 폼페이 사람들을 고대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미라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 바실리카

폼페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지어진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입구 주변에서 출토된 타일 조각의 표식으로 로마시대 이전에 지어졌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곳은 도시의 법원이자 경제 중심지였다. 주요 문은 다섯개의 통로로 구성되는데, 현관과 남쪽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깊은 우물이 있는 방으로 통한다. 현관은 바실리카로 가는 실제 입구로 통하며, 이 곳에는 네 계단 위에 파사드가 세워져 있다.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출입구가 신전을 향해 나 있으며 가운데에는 28개의 벽돌로 만든 기둥이 있었다. 폼페이에 있는 신전이나 공회장의 기둥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골을 파내여 정교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 아폴로 신전

기원전 3세기에 세워진 이 신전은 원래 이오니아식 기둥 48개가 떠받치고 있었으나 네로 황제 때 코린트 양식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첫번째 신전은 BC 6세기경에 지워졌으며 화재 이후에 BC 530 - 10년에 석조 신전으로 대체되었다. 이 신전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인 높게 쌓아올린 재단을 첼라라고 하고 신전에서는 화살을 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아폴로 신과 사냥의 여신 디아나를 모신다. 예전에는 머큐리 신에게도 제사를 올렸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폼페이의 포로는 폼페이와 나폴리, 놀라(Nola), 스타비아(Stabia) 사이의 주요한 옛 통로들의 합류지점에 놓여 있으며 폼페이에서 가장 넓고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집회장 포로는 가로 32m, 세로 142m의 직사각형 광장으로 삼면이 지붕 있는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포로에 있는 기둥은 도리아식과 이오니아식이다. 동쪽과 서쪽의 기둥은 로마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광장 중앙에서 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설자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던 곳이다. 주랑 남쪽으로는 당시 폼페이 주요 인사들의 동상을 세워 놓았던 기단이 남아 있다. 포로의 남쪽, 동쪽, 서쪽은 모두 주랑에 가려져 있으며 부근의 주요 건물들 중 북쪽의 주피터 신전만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다.

□ 목욕탕

스타비아 목욕탕은 폼페이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으로, 입구는 비아 델라본단자에 있으며, 여기에서 체육관의 안뜰로 들어가며, 체육관은 배면에 열주가 있는 포르티코로 되어 있다. 서쪽 중앙에는 풀이 있으며 측면에는 손님들이 풀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방과 탈의실이 있다. 이 방들은 다양한 색으로 치장된 벽토로 장식되어 있는데, AD 62년 지진 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목욕탕은 동편에 있다.

포럼 욕장은 비아 델레 테르메와 비아 델포로 교차점에 있다. 이곳은 AD 62년 지진 이후 폼페이에서 유일하게 목욕탕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곳이다. 이 욕장은 술라의 식민정복 이후 루시우스 케시우스와 카이우스 오키우스와 루에이우스 나레미누스가 세운 것이다. 옛 스타비아욕장을 기초로 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통치하지 않는 남성용, 여성용 두개의 구역이 있으며, 양쪽에 더운물과 증기를 제공하는 프레퍼늄이 사이에 있다.

□ 폼페이 원형경기장

폼페이 유적 남쪽으로 가면 여름철에 오페라가 공연되는 대극장과 오데온 소극장이 있다. 이 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야외 원형경기장 내지는 공연장이 있고, 그 옆에 사각형으로 된 검투사의 막사가 있다. 폼페이 원형극장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평화롭고 고요한 소렌토항(Sorre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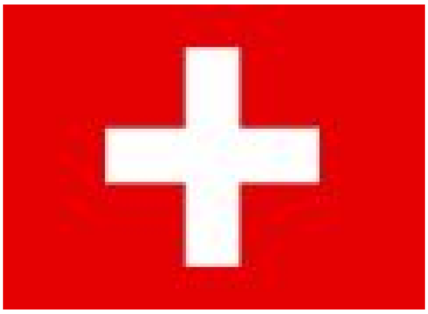
"돌아오라 소렌토로(Come back to Sorrento)
"오! 솔레미오(O sole mio)"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친숙한 가곡의 고장이다. 나폴리만의 색조와 친숙한 소음, 오렌지 숲으로 쌓인 소렌토는 역사와 예술을 자랑하는 조화와 고요의 천국이다.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현에 있는 도시로 나폴리만을 사이에 두고 나폴리와 마주하고, 배후에 오렌지, 레몬 등의 과수원이 펼쳐진 산지를 등진 경승지로서, '돌아오라 소렌토' 등의 나폴리 민요로 알려진 곳이다. 거리의 중심은 타소 광장이며, 이 고장 출신의 시인 T. 타소의 기념비가 있다.

시내에는 15세기에 재건된 성당이 있고, 박물관에는 고고학 관계 및 17, 18세기 나폴리파 미술 관계 소장품이 풍부하다. 나폴리와 소렌토의 사이에는 열차 및 연락선이 왕래하고, 나폴리만의 또 하나의 관광지인 카프리섬과도 연락선이 왕래된다. 거리 주변에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 많다. 그 밖에 포도주, 올리브유 산지로도 알려져 있다.

스 위 스

(2008. 1.19 ~ 1.20)



□ 루째른 교통박물관 견학

□ 루째른 시내 투어

- 빈사의 사자상, 카펠교

□ 인터라겐 융프라우호 등반

□ 베른 시내 투어

1. 스위스 국가개요

나라 전체가 꽃으로 둘러싸인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이기도 하다.

도시 곳곳을 장식한 발코니의 꽃들과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고산지대의 꽃들, 만년설이 뒤덮인 유럽의 지붕-융프라우와 필라투스, 티틀리스리기와 같은 많은 산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공예 등 스위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곳이다

◈ 수 도 : 베른(Bern, 12.9만명)
◈ 인 구 : 약 753만명(2006년 추정치)
◈ 면 적 : 41,284 km2(한반도의 1/5)
◈ 도 시 : 쥬리히(Zurich),제네바(Geneve),루쩨른(Luzern)
◈ 민 족 : 독일인, 프랑스인, 이태리인
◈ 언 어 : 독일어(65%), 불어(18%), 이태리어(10%), 로만어(1%)
◈ 종 교 : 로마 카톨릭(48%),개신교(44%),기타(8%)

◈ 기 후

스위스의 기후는 유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부 대서양, 동부대륙, 북부극지 및 남부 지중해 등 유럽의 4대 기류의 영향을 두루 받고 있다. 이 같은 외부 요인과 함께 산지에서 고원에 이르는 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 지역에 따라 날씨와 기온의 기복이 크다. 특히 산악지대에서는 여름에도 눈을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지역에 따라서는 여름이라도 방한용 스웨터가 필요하다. 스위스는 봄부터 여름이 여행과 휴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긴 하지만 산악지대이기 때문인지 기상변화가 매우 심하다.

◈ 지 리

스위스는 유럽 대륙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 독일과 346㎞, 서쪽으로 프랑스와 572㎞, 남쪽으로 이탈리아 734㎞, 동쪽으로 오스트리아와 165㎞, 리히텐슈타인과는 41㎞에 이르는 국경을 이루고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스위스는 남쪽지역의 절반 이상이 알프스 산맥이고 프랑스와 경계를 이루는 북서부 지역에는 쥐라(Jura) 산맥이 있다. 그 사이로 제네바, 베른, 루체른, 취리히 등을 잇는 비교적 평평한 대지가 가로놓여 있다.

국토는 지형에 따라 북동 방향에서 남서 방향으로 나란히 서 있는 쥐라 산맥 지역과 중앙 저지(일명 스위스 고원)지역, 알프스 산맥지역 등 3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은 몬테 로사(Monte Rosa, 4634m), 마터호른(Materhorn, 4477m) 등 험준한 고봉들을 이고 있어, 전 세계 산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만년설이 일품인 알프스 산맥은 유럽대륙을 적시는 라인 강, 다뉴브 강, 론 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2. 스위스 주요 관광지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인 카펠교(Kapellbruecke)

중앙역을 등지고 5분정도 호수가로 걸어 나가면 왼쪽으로 보이는 지붕이 있는 다리가 카펠교다. 루체른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길이 200m의 다리로 17세기의 화가 하인 리히 베크만의 작품이다. 1333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유럽에서 긴 나무다리로 8각형의 물의 탑 Wasserturm과 다리위의 빨간 지붕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멋지다.

다리의 나무 난간은 붉은 꽃으로 덮여 있고, 다리의 중간에 있는 8각형 물의 탑은 외적의 침입을 대비한 파수대로 세워진 것이다. 천장은 당시의 중요한 사건들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인 레오데라르와 마우리티우스의 생애, 순교자들과 영웅들의 영광, 도시역사를 묘사한 112장의 그림들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전리품 보관실과 고문실이 있다. 이름은 부근의 강크르트 페터 기도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1993년의 화재로 예전의 카펠 다리는 타버리고 지금의 건물은 1994년 재건된 것으로 밤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 빈사의 사자상

호프 교회의 호수의 반대 방향으로 300m 정도의 위치에 북쪽의 숲과 기념물인 이 조각품은 A.B토르발센이 1821년에 거대한 자연석에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파리에서 루이 16세 일가를 마지막까지 보호하다 숨진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빈사 상태로 누워있는 사자의 조각품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누워 있어 애처로운 모습이다. 사자 곁에는 죽어가면서 지킨 프랑스 왕조의 상징인 백합꽃이 새겨진 방패가 있다.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사자의 표정을 실감나게 묘사한 이 작품에 대해 마크 트웨인은 빈사의 사자상을 두고 세계에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암흔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그 규모나 크기는 실망스럽다.

이 곳에는 여름에 음악제가 열리는데, 기념비 앞의 작은 연못에 무대가 설치되어 야간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며, 이 주변에는 대사원과 빙하공원, 스위스 교통 박물관, 바그너 박물관등이 있다.

□ Top of Europe, 융프라우(Jungfrau)

해발고도 4,158m의 융프라우는 아이거, 묀히산과 함께 알프스3대 명산으로 꼽히며 ’젊은 여인’ 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산세를 하고 있다. 융프라우는 해발 3454m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요흐까지 연결되는 등산열차는 관광객의 발길을 융프라우로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산악열차는 인터라켄 동역에서 출발한다. 융프라우요흐로 오르는 길은 두 곳으로 나뉘는데 라우터브루넨을 경유하는 노선과 그린덴발트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갈라진 후 클라이대 샤이데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클라이네 샤이데크에서 융프라우까지는 불과 10km에 불과하지만 경사가 심한 석회석 암벽을 뚫고 철길을 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정상을 오르면서 빙하의 흔적을 보도록 기차가 중간에 정차를 하며 정상에 도착하면 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다. 물론 날씨가 좋아야 가능하지만 파란 하늘에 하얀 눈이 절경이다.

알프스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는 레스토랑과 얼음궁전, 우체국, 매점, 응급구호소 등이 있다. 정상의 레스토랑에서 우리나라의 컵라면을 파는데 여행객에게 인기가 좋다.

융프라우 정상에서는 밖으로 직접 나가 눈을 즐길 수도 있는데 스키나 눈썰매, 개썰매 등을 타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고도가 높고 바람이 부는 일이 많으므로 조심할 필요는 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융프라우로 가는 두가지 길을 모두 체험해 보기 위해 라우터브루넨과 그린덴발트 양쪽을 다 이용하는데 아름다운 스위스의 시골 풍경으로 하이킹을 즐겨 봐도 좋다. 스위스 여행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필수 코스라 할 수 있다.

3571m 11,782 ft
JUNGFRAUJOCH
TOP OF EUROPE

JUNGFRAUJOCH
TOP OF EUROPE

Jungfraujoch
Top of Europe
Mönch
Sphinx viewpoint

3. 주요방문 도시 소개

□ 루체른

피어발트슈테터호의 서쪽 끝 로이스강의 기점에 위치하여 취리히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정도 떨어진 곳으로 루체른은 중세의 거리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스위스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루체른은 산으로 둘러싸인 맑은 호수가 있으며 피어발트슈테터 호반을 중심으로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로이스 강과, 근교에는 리기나 필라투스 같은 유명한 산봉우리들도 있다.

도시를 가른 로이스 강에 의해 만들어진 루체른 호수는 스위스 최대의 리조트 지역이 되었고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다. 알프스와 비에르발드 스타테르 호수를 배경으로 빈 마르크트 광장과 하이리첸 광장은 16세기에 번성했던 예술기법인 밝은 채색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스위스의 최대 관광도시이니 만큼 역사적인 유적들과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오래된 건물들과 운치있는 지중해 풍의 경관이 어우러진 곳이다. 특히 카펠 다리는 스위스의 역사의 장면들로 장식되어있는 곳으로 시의 상징이 되고 있다.

□ 취리히 (Zurich)

스위스의 북 서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수도로 오해하지만 단지 우리나라와 직항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일 뿐이며 항공으로 입국시 대부분 취리히를 이용하게 된다.

스위스는 북으로 독일, 동으로 오스트리아,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으로는 이태리와 인접한 나라이다. 스위스의 제1의 도시로서 산업,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눈덮힌 알프스의 장관과 맑고 푸른 호수들 사이에 마치 그림 같은 곳으로 국제 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으며 취리히 호와 리마트강 옆에 아담하게 있는 작은 도시이다.

인구는 많지 않지만 문화의 중심지로 제임스 조이스, 바그너 등의 수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 학자들이 찾아와 예술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 교육학의 선구자인 페스탈로치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니 만큼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 취리히 공과 대학 등 유명한 기관들도 자리 잡아 있다.

취리히의 경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전형적인 스위스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로마시대 때 부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금의 린덴호프에 세관이 설치되고 취리쿰에서 지명이 탄생되었다. 스위스의 유일한 도시적 면모를 갖추고 있는 취리히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등의 3개 국어가 사용되며 스위스에서 독일어권의 중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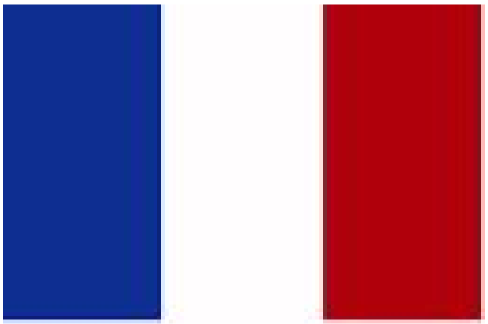
□ 인터라겐

인터라켄이라는 도시 이름은 브린츠(Brienz)와 툰(Thun) 두 개의 호수 사이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며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들이 도시를 둘러싸여 있다. 날씨가 좋으면 융프라우 정상이 보이기도 한다.

주로 융프라우를 비롯한 산악열차가 출발하는 기점으로 이용되는 도시로 스위스 여행객 중 대부분이 이 도시에 들른다. 도시는 그다지 크지 않아 산책 삼아 걸어 다닐 정도의 크기이며, 도시가 전체적으로 호반 휴양지 분위기를 띈다.

프랑스 파리

(2008. 1.21 ~ 1.22)



□ 루브르 박물관 견학

□ 자전거 도로 견학

□ 라데방스 견학

□ 파리 시내 투어

- 바스티유 혁명탑, 개선문, 상제리제거리, 몽마르뜨 언덕, 세느강, 에펠탑 등

1. 프랑스 국가 개요

◈ 수 도 : 파리

◈ 인 구 : 약 6,358만명(2006년 추정치)

◈ 면 적 : 551,602km2 (한반도의 2.5배)

◈ 주요도시 : 리용(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 주요민족 : 골족(Gaul)

◈ 주요언어 : 불어

◈ 종 교 : 카톨릭(82%)

◈ 기 후 :온화한 해양성 기후,여름에 따뜻, 겨울엔 온화

2. 파　리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며, 유럽 최대의 대도시권 가운데 하나인 도시로서 2,000여년 전 세느강(Seine River)의 시테섬에 세워졌다. 세느강(Seine River)은 파리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며 시를 강의 북쪽(Rive Droite, 하류를 바라볼 때 우안)과 강의 남쪽(Rive Gauche, 좌안),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북쪽은 상업이 성하고, 남쪽에는 소르본 대학교 등 교육 기관이 많아 문화 활동이 활발하다.

파리시는 영국 해협에 면한 세느강 어귀로부터 내륙쪽으로 약 375㎞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일드프랑스(Il de France) 지방에 속한 8개주 가운데 하나로서 파리분지로 알려진 비옥한 농업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파리의 지형을 살펴보면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졌는데, 북쪽에 몽마르트르 언덕이 있고, 남쪽에 생트 쥰비에브 언덕 및 까이유 언덕, 서쪽에 샤이오 언덕, 그리고 동쪽에는 벨빌, 메닐몽땅, 샤론과 같은 언덕이 있다. 파리의 외곽은 고도로 공업화된 지역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파리의 허파′ 라고 불리는 너도밤나무와 참나무의 거대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난 몇 백년간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력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현재도 세계의 예술, 패션, 유행 등을 선도하는 주요한 도시이다.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은 파리를 일컬어 예술의 도시, 패션의 도시, 빛의 도시, 낭만과 고독이 함께 숨쉬는 도시, 꿈과 사랑의 도시 등으로 부르고 있다. 파리는 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의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파리시는 2,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중요한 교통망의 교차점에 있어 성장을 계속해 왔다. 파리시는 크게 중심부의 시테섬과 세느강을 중심으로 한 좌안과 우안으로 구분된다. 또한 파리는 각 구마다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총20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구들은 파리의 심장부에서부터 달팽이의 소용돌이 꼴로 번호를 매겨, 제1구, 제2구 등으로 부른다.

파리시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파리는 특히 밤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연인들이 밤새워 얘기를 나누는 세느강변,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불빛 등은 파리의 꿈과 낭만을 보여준다. 또한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숲이 우거져 있는 도시 중 하나로서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현대식 빌딩 사이로 수많은 정원과 공원 등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무수히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 및 기념물, 박물관, 초현대적인 패션 및 예술 등이 어우러져 있는 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봐야만 하는 도시이다.

교 육

파리에는 프랑스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가 대부분으로서 초등, 전기중등, 후기중등의 3단계가 있다. 파리는 오래전부터 세계 고등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여 왔는데, 현재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Universite Pantheon Sorbonne)부터 파리 제13대학교(Universite de Paris XII／Universite Paris Nord-Villetaneuse)까지 13개의 국립대학교가 있다. 그 외에도 파리에서 유명한 교육기관으로서는 고등상업학교(Ecole des Hautes Etudes Commerciales／HEC), (Ecole Normale Superieure), 국립행정학교(Ecole Normale d′Administration／ENA) 등이 있다.

산　업

파리는 프랑스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상업적 중심지로서 많은 국제적 기업들이 상업 및 금융, 서비스업부문에서 활동하는 본거지이다. 프랑스의 대기업들은 주로 거래은행 및 관련 정부부처가 있는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의 주요한 금융기관 및 서비스기업들이 파리에 지사를 두고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공업을 위한 시설은 지방으로 이전되었지만 여전히 파리는 프랑스에서 주요한 공업도시이다.

3. 파리 주요 유적지

□ 프랑스 역사 영광의 상징인 개선문

개선문은 전쟁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황제 또는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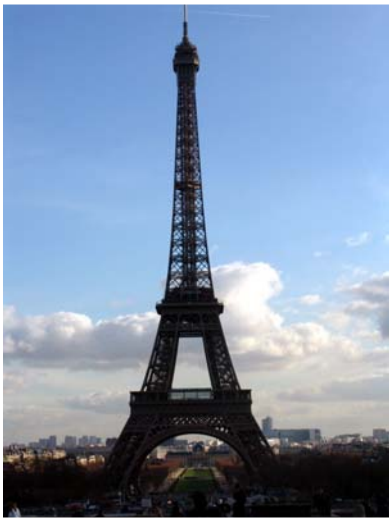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의 개선문은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의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문으로서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건축된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1806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1836년에 지어진 총 30년에 걸쳐 지어진 세계 최대의 문으로서 높이 49.54m, 폭 44.82m이다.

4면에 설치된 부조는 전쟁을 모티브로 하여 설치되었는데 샹젤리제 거리와 마주한 오른쪽에 새겨진 뤼드(Rude)가 새긴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가 유명하다. 개선문 내부에는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개선문 전망대에 올라가면 파리 시가지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대로가 방사선형으로 뻗어 있다.

□ 파리의 상징, 에펠탑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에펠이 설계하여 세운 기념탑으로서 파리의 상징적인 기념물이다. 총 3개층 321m의 높이인 에펠탑은 대혁명이 일어난 해인 1789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789개의 계단이 있다. 밤에 조명을 받은 탑의 모습한 가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 1억 5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에펠탑을 방문하고 있을 정도다.

에펠탑에는 총 3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제1전망대는 51m, 제2전망대 115m, 제3전망대는 274m 지점에 각각 위치한다. 각 전망대에서는 파리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또한 비스듬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전망하는 파리시내도 매우 아름답다. 탑내에는 레스토랑, 기념품 상점, 영화관 및 리셉션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귀스타브 에펠 홀 등이 있다.



□ 루브르 박물관(Musee du Louvre)

1793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박물관이 된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서 그 규모는 약 6만㎡에 달한다. 현재 40여만 점의 예술품들이 그리스-로마, 이집트, 오리엔트, 회화, 조각, 가구 등 8개 부분으로 구분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기원전 2-3세기 작품인 ′사모트라케의 니케′,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이집트의 ′함무라비 법전′ 등이 유명하다.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파리의 상징물중 하나이다. 1989년에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는 나폴레옹 광장의 한복판에 22m 높이로 서 있는 박물관의 입구로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루브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 피라미드의 내부로 들어가면 강당, 시청각실, 레스토랑, 나폴레옹홀, 각종 상점이 있는 카루젤 뒤 루브르 등이 있다.

□ 몽마르트르 언덕

순교자들의 시체를 쌓아 두었던 언덕이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몽마르트르는 파리 북동쪽에 있는 130m 높이의 언덕이다. 이 언덕에는 20세기 들어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의 거리였다.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사크레쾨르 대사원, 테르트르 광장, 몽마르트르 묘지, 몽마르트르 박물관, 라팽 아질, 모로 미술관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으며, 거리에서는 무명화가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그림을 팔고 있다.

□ 성심성당

몽마르트르 언덕 위에 서있는 로만 비잔틴 양식의 성심성당(Basilique du Sacre-Coeur 사크레 쾨르 대성당)은 19세기 말 보불 전쟁 후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성당의 하얀 건물이 인상적이며, 특히 중앙에 높이 83m, 폭 50m, 내부길이 100m인 거대한 돔이 있다. 야간에 불빛을 받은 건물은 가히 환상적으로 보인다. 한편 돔에서는 파리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

□ 바스티유광장

프랑스 혁명당시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던 곳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광장 중앙에는 52m 높이의 프랑스 혁명 기념탑이 있는데, 탑의 전망대에서는 파리 시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광장 부근에는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바스티유 오페라극장(Opera de la Bastille) 건물이 있는데, 이 오페라극장의 유리와 알루미늄 외벽이 인상적이다.

□ 샹제리제 거리

샹제리제 거리의 한쪽 끝은 콩코드 광장과 닿아 있고 한 쪽은 개선문이 있다.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수가 여름에는 싱그럽고 가을에는 낙엽이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아름다운 시즌은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등 가로수에 전구를 달아 불을 밝힐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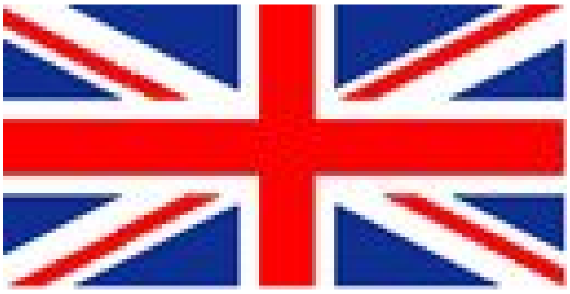
이 샹젤리제 거리는 일류 브랜드의 상점들이 몰려 있으며, 쇼윈도의 다양한 전시물들이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귀족적인 거리이다. 거리 양쪽에 늘어선 건물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나 고풍스러운 석조 건축들이다. 이곳은 물건을 사기 보다는 쇼핑가를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쇼핑거리이다.

□ 세느강 유람선 바토무슈

파리시를 관광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세느강의 관광유람선은 바토무슈(Bateaux-Mouches)와 바토 파리지앵(Bateaus-Parisiens)이 유명한데, 바토무슈는 알마교 오른쪽 선착장에서, 바토 파리지앵은 에펠탑 바로 옆의 이에나교 왼쪽 선착장에서 각각 출발한다.

영 국 런 던

(2008. 1. 23)



□ 대영 박물관 견학

□ 웨스트민스터시티 방문

1. 영국 국가개요

영국의 정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연합국가인 셈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은 북부의 스코틀랜드, 남동부의 잉글랜드, 남서부의 웨일스로 되어 있다. 영국의 기원은 5-6C 경 게르만계의 앵글로 색슨족이 잉글랜드에 침입해 9C경 통일된 왕국을 수립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간의 갈등은 지금도 남아 있다.

◈ 수　　도 : 런던(London, 707만명)
◈ 인　　구 : 약 6천 20만명(2006년 추정치)
◈ 면　　적 : 241,752 km2 (한반도의 1.1배)
◈ 주요도시 : 에딘버러(Edinburgh),리버풀(Liverpool), 캠브리지(Cambridge)
◈ 주요민족 : 앵글로 색슨(Anglo-Saxons), 켈트(Celts)
◈ 주요언어 : 영어
◈ 종　　교 : 영국국교(Anglican,50%), 카톨릭(11%), 개신교(30%), 기타(39%)

2. 런 던

영국의 수도로서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연방의 사실상의 중심도시이며, 뉴욕, 상하이, 도쿄와 더불어 세계 최대 도시의 하나이다. 1888년 런던주가 설치되었고, 1899년 시티오브런던을 제외한 지역을 28개의 행정구로 구분하여 런던 주청이 통할하였다. 다만 런던 경시청(스코틀랜드 야드)은 주변의 여러 주에 미치는 수도경찰관구를 관할하였다. 1963년 런던 행정법에 의해서 1965년 런던 주청이 폐쇄되고 대신 시티오브런던을 포함한 32개의 행정구로 구성된 그레이터 런던 주청이 설치되었다. 런던주는 종래의 런던주 외에 미들섹스, 하트퍼드셔, 에식스, 켄트, 서리 등 각 주의 일부를 포함하며, 수도 경찰관구보다는 좁으나 런던교를 중심으로 반경 약 24Km, 구 런던주의 약 5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였다.

교 육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는 19세기 자유주의 운동으로 생겨났다. 1825년 시인 토머스 캠벨이 기계공과 대부호 사이의 계층을 교육시키는 대학을 세우자고 한 데 이어 1827년 자유주의자와 영국 비국교도들이 런던대학교(지금의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세웠다. 대학이 가톨릭 신자, 유대인, 비영국성공회교도에게 입학을 허락했기 때문에 왕의 인가는 받지 못했다. 1831년 영국성공회의 후원으로 킹스 칼리지가 설립되었지만 비성공회교도들이 인가를 방해했다. 1836년 수업은 하지 않지만, 위의 두 대학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행정상의 실체로서의 런던대학교가 만들어졌다. 1849년에는 보충인가장(Supplemental Charter)으로 대영제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이면 누구나 런던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르고 런던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런던근로자대학과 같이 서로 다른 교육기관 출신 학생도 런던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어떤 교육기관에도 등록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학위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19세기말까지 많은 다른 교육기관과 제휴했는데, 그 기관은 영국에서 최초로 여자에게 학위를 수여한 베드퍼드 칼리지, 지금은 사회학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런던경제학·정치학대학, 나중에 임페리얼 과학기술대학이 된 3개 기관이다. 1900년에는 자체 교과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인가 받았다. 이 대학이나 자매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내부학생′이라 부르고 시험은 치르지만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은 ′외부학생′으로 일컫게 되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런던대학교 외부시험을 치르려 하기 때문에 영국과 식민지국 도처에 있는 대학교들은 런던대학교 교과과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인도·오스트레일리아·아프리카가 런던대학교를 모델로 대학 체제를 세웠다.

산 업

런던 인구의 과반수는 광의의 유통부문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주변 공장지대에는 기계·직물·시계·전기·약품·플라스틱·식품·담배·인쇄 등의 각종 공업이 성하다. 유통산업에서도 중요한 곳은 런던 항으로 런던·틸베이·세이트캐서린·이스트인디아·웨스트인드아 등 11개의 독이 있으며, 평상시에도 2만 명 이상의 항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런던의 대인구를 유지하는 각종 시장도 유명하며, 빌링스케이트 어시장·스미스필드 식육시장·버로마켓·코벤트가든·스피틀필드의 각 채소 시장 등은 모두 17세기 이전부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런던의 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것은 런던시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옮겨간 후에도, 국제경제에 있어서 런던의 중요성은 시티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현재도 국제상품시세의 중심이 뉴욕이 아니고 런던에 남아 있는 것도 있다.

기상과 기후

영국의 기상은 변화가 심하다. 어떤 계절에 영국을 방문하든 따뜻한 옷과 방수 자케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스코틀랜드와 남부 잉글랜드 사이에는 현격한 기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런던 주요 관광지

□ 대영박물관

한 해에 관광객이 무려 400만 여명이 다녀가는 세계 최대의 인류문화유산의 보고인 대영박물관은 의사였던 한스 슬로엔 경이 남긴 슬론 컬렉션에 왕실의 소장품과 로버트 고튼 경, 옥스퍼드 백작 로버트 해리의 고서를 함께 모아 설립되었다.

1759년 개관 이후 세계 각 국에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모아 오늘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그 후 1824년부터 28년간의 세월에 걸쳐 증, 개축된 이 곳은 현재 44개의 이오니아식 원주에 받쳐진 그리스식 건물로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

□ 버킹엄 궁전(Buckingham Palace)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이래 영국 왕실의 주거지가 된 버킹엄 궁전은 원래 버킹검 하우스로 건립되었다. 1726년에 왕실이 매입하여 개장, 증축을 한 결과 색상이 어색하고 양식도 제멋대로인 궁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면 부분은 훌륭하며 특히 바깥 담의 금빛 장식과 중후한 철문의 부조는 궁전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궁전 앞 광장에는 금빛 천사를 조각해 얹은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가 있는데 이 기념비는 빅토리아 당시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 곳은 2만㎡의 호수를 포함한 17만 4천㎡의 대 정원과 다수의 미술품을 소장한 미술관, 도서관이 있으며 여왕이 궁전에 있을 때는 정면 중앙에 왕실 깃발인 로열 스탠드가 나부낀다.

여행객들이 버킹엄 궁을 찾는 이유는 그 유명한 근위대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다. 교대식은 시즌에 따라 다른 스케줄로 진행이 되므로 여행시 사전에 알아보고 가야 한다. 또한 비가 올 때도 진행되지 않으며, 인파가 몰려 열릴 시간보다 미리 가 있어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

□ 영국의 상징, 타워 브리지

런던의 명물 중의 하나로 자리 굳힌 타워 브리지는 대영제국이 절정기를 구사하던 1894년에 빅토리아 양식으로 완성된 템스 강의 가장 하류에 있는 가동교이다. 다리 밑으로 대형선이 지나가면 90초 동안 팔자 모양으로 열린다.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시절에는 하루에도 50회 이상 다리가 올려졌지만 지금은 주 2~3회만 올려지기 때문에 운이 나쁘면 볼 수 없다. 템스 강의 다리 중에서 가장 멋진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다리 완성 이후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총 길이 270m, 총 중량 1100톤에 달한다.

고딕 양식의 양쪽 두 탑 사이에는 유리로 끼운 인도교가 있어 여기서 런던 탑등을 바라볼 수 있다. 탑 안에는 다리의 구조와 런던 다리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으며 엔진실에서는 옛날에 사용하던 수압식과 현재의 전동식 엔진을 볼 수 있다. 다리 위에 놓인 유리로 된 육교에서 런던 시내를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다.

□ 국회의사당(Houses of Parliament)

국회의사당의 동쪽 끝 첨탑의 이름이 빅벤(Big Ben)이다. 공사담당관인 벤저민의 이름을 축약해 빅벤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도 정해진 시간에 타종한다. 아름다운 고딕스타일의 첨탑으로 영국의 상징, 영국국회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건축적으로는 좌측의 빅토리아 타워와 우측의 빅벤이 균형을 잘 이뤄 고딕양식의 완결을 보여 준다

□ 런던타워

런던 시 동쪽, 템스 강의 북측 강변에 있다. 정복왕 윌리엄 1세가 대관식(1066년의 크리스마스)을 마친 뒤, 토착상인사회를 지배하고 중요한 항구였던 런던 소(沼)를 통제할 목적으로 곧 바로 요새를 세웠다(런던 소는 19세기 들어서 그 하류에 선착장을 건설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항구로 사용되었음). 화이트 타워라고도 불리는 중앙 본체는 로마 시대 때 지은 성벽 바로 안쪽에, 노르망디의 케인 지역에서 실어온 석회석을 재료로 1078년부터 짓기 시작했다. 12, 13세기에 성벽 밖으로 요새를 넓혔고, 화이트 타워는 안팎으로 동심원(同心圓)을 이룬 방벽의 중심이 되었다.

안쪽 ′장막′(방벽)에는 13개의 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유명한 것은 블러디 타워, 비첨 타워, 웨이크필드 타워이다. 바깥 방벽에는 6개의 탑과 2개의 능보가 있다. 그 둘레에는 해자(垓字)를 파서 템스 강에서 물을 끌어 왔으나 1843년부터는 물을 빼버렸다. 해자 바깥 성벽에는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총안(銃眼)이 있으며 그중 몇 개에서는 지금도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포를 쏜다. 영국 왕실의 의전(儀典)에 쓰이는 보물과 의복들은 이곳 지하에 있는 주얼 하우스(Jewel House)에 보관한다. 런던 탑 건물 전체의 면적은 7㏊이다.

유일한 육로(陸路) 출입구는 남서쪽 귀퉁이에 있으며 런던 시내와 연결된다. 런던의 주요교통로로 강을 이용하고 있었을 때는 대개 13세기에 만든 수문으로 드나들었다. ′반역자의 문′이라는 수문의 별명은 오랫동안 감옥으로 쓰이던 런던 탑에 호송되는 죄수들이 이 문으로 지나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많은 죄수들이 이곳의 타워 그린에서 살해되거나 처형되었으며, 성 바깥의 타워 힐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기도 했다. 오늘날 화이트 타워에 있는 무기창고와 그 옆에 있는 17세기 후반의 벽돌 건물에는 중세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무기와 갑옷, 투구가 소장되어 있다.

런던 탑은 17세기까지 왕의 공관으로 쓰였다. 이 당시에는 조폐국·법령보관소·공문서보관소·왕립동물원(라이언 타워) 등도 이곳에 있었으나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탑 안에는 수비대가 있으며 런던 탑 경내에서는 런던 시장과 주교의 관할을 받지 않는 ′자유′가 있다. 이곳은 국왕을 대신하여 언제나 육군원수 중에서 임명되는 관리장관이 장악하고 있다. 이 곳의 관리장관은 타워 그린에 있는 16세기 여왕의 집에서 살며 흔히 ′비피터′(beefeater)라고 부르는 보초 근위병을 다스린다. 그들은 지금도 튜더 왕조 때의 제복을 입고 있다. 런던 다리 하류에서 템스 강을 가로질러 도시 중앙으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타워 브릿지(1894)가 런던 탑 옆에 있다.

유럽문화 체험후기

유럽은 4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우리가 방문한 1월은 우기철이라고 한다. 다행이 로마 바티칸시국을 방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좋은 날씨여서 무지 다행스러웠다. 융프라우는 1년 중에 15일만 햇살이 비추는 맑은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흰 눈과 따가운 햇살에 눈이 부실정도로 맑은 복 받은 날이었다. 파리를 방문했을 때도 바로 전날까지 1주일 동안 비가 왔었다고 한다.

유럽 사람들, 나라마다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키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키가 매우 작았다. 로마에서는 160cm 정도 밖에 안되어 보이는 큰 코의 곱슬머리 남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서양인들은 모두 키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편견이었다. 로마인들의 성향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감정이 풍부하고 다혈질적이지만 매우 서민적이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스위스 사람들은 뽀얀 피부에 금발머리로 아이들은 하나같이 마네킹처럼 예뻤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민족이 많아서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았고 특히 흑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영국인들은 반면 키가 매우 컸다. 영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못생긴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유럽에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물을 사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환경으로 물이 석회수라서 그냥 마시면 안된다. 또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값을 지불해야 했다. 더욱이 로마 화장실에는 변기 커버가 없다. 사용할 때마다 변기커버를 갈아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 관광객이 너무 많아 화장실 관리가 힘들어 아예 떼어 놓는 것이라고 한다.

유럽은 7시 이후로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일찍 귀가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할 일 없는 유럽남자들이 그래서 축구에 빠져들고 잔디를 잘 돌본다는 가이드의 설명.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금물이라고 한다.

유럽 어디든 소매치기가 극성이다. 유럽연합 EU가 동부유럽 쪽으로 확대되면서 동부유럽의 못사는 사람들이 여권하나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를 한다고 한다. 그들이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우리나라 지점토 인형인 "만득이"를 파는 모습에 새삼 웃음이 나왔고, 프랑스 유명관광지인 몽마르뜨언덕과 에펠탑에서는 구걸하는 짚시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궂은 날씨로 길거리에서 우산을 팔고 있는 검고 순박한 큰 눈을 한 흑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흑인의 얼굴이 너무 선해 보여서 외국인에 대한 무서운 적대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 로　마

로마하면 작은 자동차와 고딕건물이 생각난다. 작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분히 이들이 경제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건물들을 보전하고자 건축이 자유롭지 못해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소형 자동차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로마에는 지하철이 2개호선 밖에 없는데 지하 속 문화 유적을 보호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로마 역시 출퇴근 시간이면 길이 많이 막히고 있다.

로마의 주택들은 주상복합 형식으로 1층에는 상가가 위치해 있고 2층부터는 사무실이나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로마 거리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하나 내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의 벽, 심지어는 관용 쓰레기차에도 낙서나 그림을 그려 넣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온 도시의 벽이 낙서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규제는 하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는 오히려 그것이 예술작품처럼 보이기도 했다.

로마의 정리 안된 휴지통

이탈리아는 전기세가 비싸다고 한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으로 인해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고, 차라리 비싼 전기세를 내더라도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로마 시민들..

로마에서 폼페이로 가는 전원풍경

화산 폭발로 인해 화석으로 남은 폼페이 유적지를 보면서 AC 100년대 당시 로마인들은 두뇌구조가 우리 민족과는 다른 논리적, 구조적, 기계적, 합리적 뇌구조를 가졌음에 틀림없음을 실감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도 건설해 내기 힘든 계획된 도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마 시내 한복판 상류층이 사는 번화가에는 그야 말로 패션쇼를 보는 듯 여성들의 옷차림이 모델처럼 세련되고 화려했다. 패션의 고장 이태리 다웠다. 시내 한복판 트레비 분수를 가기 위해 지나가는 도심엔 주요 오성 호텔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로마경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로마의 번화가 거리

저녁이 되면서 옛 유적지인 개선문, 신전, 로마 시청, 베네치아 광장 등을 지나 콜로세움 원형경기장에 이르는 거리는 흐릿한 간접조명과...포근하면서도 상쾌한 저녁기운으로 인해 '사랑의 도시' 라는 닉네임을 실감케 하는 로맨틱한 분위기의 시간이었다. 우리 일행은 서로의 맘이 저절로 열린 채, 피곤하지만 마냥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이탈리아를 떠나는 날.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마 공항 계단 난간과 벽에는 삼성 로고와 핸드폰 광고가 도배질처럼 되어 있었다. 대한민국과 삼성의 위상을 느끼는 뿌듯한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대주의 사상으로 우리 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서양을 좇아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변질시켜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것을 계승 발전하고, 현 시점에서의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출하여 우리 후손에게 유럽의 그들처럼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 스 위 스

스위스는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나라다. 이탈리아와는 달리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곳이었다. 상쾌한 공기와 잘 정비된 도로와 도시, 사람들은 바쁘지 않고 여유로워 보였다.

시내 길 한 복판으로 달리는 자전거, 언제나 도로에선 신호등에 상관없이 사람이 우선인 자동차들, 그리고 마네킹처럼 예쁜 아이들..... 정말 풍요와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다.

스위스는 정말 청명하고 상쾌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었다. 융프라우를 가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인터라겐으로 향하는 길은 두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길이 있었다. 융프라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탑승한 전동차 안에서 창밖의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보고 있노라면 “우아~ 달력 그림이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사진에서 많이 보아 왔던 아름다운 전경을 그대로 우리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융프라우 정상의 풍경 또한 환상 그 자체였다. 정상에서의 가슴 확 트인 환희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루체른시에서 카멜교로 향하는 길에 그 유명한 로렉스 시계 본사건물이 있었다. 이 작은 건물에서 시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생각하니 근엄해 보이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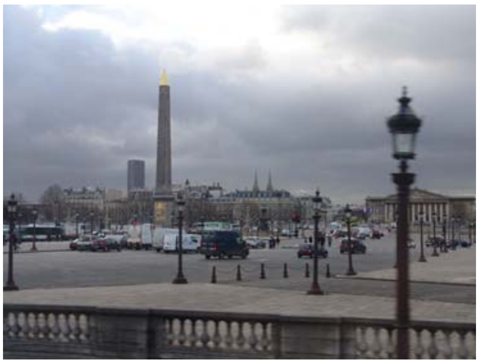
스위스 역시 관광자원과 금융, 시계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쉽게 부를 축적하는 곳이다. 우리는 외국 자원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도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힘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

□ 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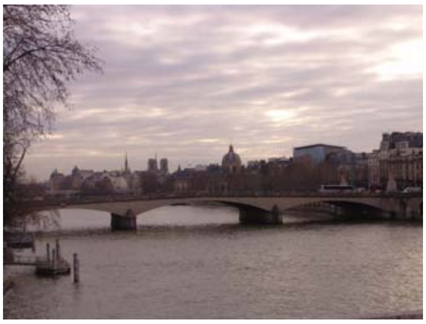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 파리 역시 옛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다. 파리는 나폴레옹, 잔다르크 등, 프랑스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려 인물들의 조각상을 새겨 두었고, 후손들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프랑스인들의 섬세한 민족성과 그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했다.

개선문에서 샹제리제 거리를 지나 라데방스 신도시의 신개선문을 일직선으로 잇는 도로의 모습은 파리시의 과거와 현재를 잘 이어가려는 행정의 의지가 잘 보여 진다고 하겠다.

파리에 할애된 2일의 짧은 일정으로 버스로 시내를 둘러보아야 했기 때문에 가이드의 설명을 듣긴 했지만 주요명소를 주마간산으로 지나쳐 너무 아쉬웠다.



콩 코 드 광 장



세 느 강

노트르담성당

파 리 거 리

파 리 건 물 들

□ 런 던

런던에서 우리의 마지막 하루의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하루 중에 중요한 웨스트민스터시 방문과 한국으로의 출발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이 었다. 날씨마저도 런던 날씨답게 금방 비가 올 듯 잔뜩 찌푸리고 우중충해서 마지막 일정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보태기에 충분했다.

영국이층버스

템즈강과 런던아이

트라팔가 광장

영국은 정말 신사의 나라였다. 호텔 안에서 마주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예의바르게 행동했고, 웨스트민스터시의 관계공무원들도 매우 반듯하며 친절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런던은 또한 물가가 너무 비쌌다. 500ml 물 한 병에 1파운드(한화로 2,000원)이어서 다른 EU국가의 1유로(한화로 1,400원)에 비교되었다.

§ 맺 음 말

서부유럽 해외연수..... 7박 9일의 긴 여정이었지만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접함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다.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던,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전통을 계승하여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유산은 미약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훌륭한 유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임을 절실히 느꼈다.

요즘 각 신문지나 매스컴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특히 유럽연수에 대해 호화판 외유라는 이유로 질타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진문화를 보고 배우고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키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